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손든 1심 재판부 “허가 이후 무단 개원 거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적법성 판단은 유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법원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단 것에 대해선 적법성 판단을 내리지 않고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헬스케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함께 제기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공적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이런 행위 때문에)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따라 개원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과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녹지병원 개설 허가 지연으로 병원 측이 채용한 직

원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개원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원고는 병원 개원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인력 이탈은 업무 시작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주도가 업무정지가 아닌 개원 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도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내린 기각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나온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녹지 측이 병원 개원을 할 수 없는 상

황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도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개원 허가 취소 적법 판단에 따라 나머지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재판부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1심의 기각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각하 판결하지 않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만약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해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소송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 영리병원 개원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상민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납 못해” 원 지사 소송 카드로 日에 경고장

어제 국회서 기자회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앞장서 국제 소송 등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긍정적 한일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며 “나아가 제주도과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한

일해업연안시도현사회의(8개 도시), 한태평양평화공민도시협의회(7개 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제주도와 대한민국, 한일해협연안 주민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당사국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독일 쾰른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만에 제주에 닿고 그로부터 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대학, 가나자와 대학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오염수의 농도가 낮춰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부미원기자

“녹지병원 공공전환 논의” 시민단체 법원 판결 환영

법원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낸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녹지그룹 등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 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더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시작 지난 13일부터 전 도민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9일부터 만 62세 이상 도민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뤄지며 20일 제주도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붐비고 있다. 이상민기자

화북단지 노동자 열에 넷 “수당이 댕가요”

최저시급 적용도 45.6%뿐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내 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법에서 보장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화북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화북공업단지 노동자 101명을 상대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노동 시 법정가산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을 받

는다는 응답은 38.6%, 휴일근로 시 150%의 가산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0.5%에 불과했다. 휴가의 경우 본인 연차와 여름휴가를 모두 보장 받았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44%, 비정규직이 29.4%에 그쳤다.

아울러 2020년(8590원) 최저시급을 적용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45.6%에 불과했다. 또 최저시급을 적용 받지 못한 노동자의 70.6%는 이만한 임금 때문에 근무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 행정당국은 화북공업단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송재호 의원 내달 4일 법정 선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법원, 준비기일 없이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4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11월4일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서 나와야 한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도 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말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또 검찰은 송 의원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9월18일 발표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일주일 뒤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비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란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감귤 농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한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엽면시비

양배추·브로콜리·마늘·감자·당근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썬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하순)**
희토락F 5ℓ + 썬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품 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썬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밀싹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축진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